

“내년 겨울 새시대 여는 무등의 아침 맞고 싶다”

안철수 대권 도전 선언

광주서 지지자들과 산행
**“총선 민심이 거대 양당 심판
 국민의당 중심 정권교체”**
 격차 없는 공정한 세상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7일과 28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대표직 사퇴 이후 떨어진 당 지지세를 되찾고 견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광주·전남을 방문해 대표직 사퇴 이후 떨어진 당 지지세를 되찾고 견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무등산 첫 산행~정치적 의미? = 안 전 공동대표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광주 무등산을 올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광주를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등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이날 무등산 산행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가 ‘시대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격차없는 공정한 세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우선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행에 앞서 “무등산(無等山)은 ‘등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이 격차 해소인데, 무등산이 그 시대정신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침에 무등산 기슭에 도착하면서 시대정신을 생각했다. 여기 모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운데 검정색 상의)가 28일 오전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지구에서 산행 중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분들도 시대 정신에 대한 열망으로 모이신 분들일 것”이라며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대정신을 이루기 위해 저와 국민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산행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무등의 정신은 너나 없이 기회가 열리는 격차없는 세상, 금수저와 기득권, 흠수저가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말한다”면서 “남과 북이 무기 내려놓고 공존하는 평화적 시대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겨울, 서늘이 내린 무등산에 와보고 싶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다”고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아울러 차기 대권을 꿈꾸는 안 전 대표가 호남인들에게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

는 무등산에 오른 것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끌어안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개혁세력 강조=안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을 양 극단 대 합리적 개혁세력 간 대결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처럼 양 극단 중 한쪽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절반도 안되는 국민을 데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그냥 바꾸는 걸로만 안되고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이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간 사회적 격차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강조하면서 “4년전에는 힘들고 고단함이었다면 지금은 분노로, 정권교체로 시대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이 저희를 세워주셨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반한다”며 사실상 국민의당 중심의 새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총선 의미를 잘 짚어보면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내년 대선에서 폭발할 것”이라며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오는 30일 고향 부산을 방문해 당 전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영남지역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영남지역 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뉴프런티어 희망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박지원 강진 막걸리 회동

朴 “안철수와 경선... 정권교체 이루자”

孫 “지금 하산 중”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을 통해 정권 교체”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손 전 대표가 합류할지 주목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손 전 대표와 2시간 30여분 동안의 회동을 마친 뒤 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은 ‘친박’, 더민주당은 ‘친문’이지 만 국민의당은 친박·친문도 아닌 열린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를 도와달라”고 손 전 대표에게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난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 전 대표와 같은 지식과 경력, 합리적 사고를 지닌 지도자가 필요한 만큼 설령 국민의당이 아닐지라도 국민이 갈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예정보다 10분 정도 먼저와 대기하다 7시 정각에 도착한 박 비대위원장을 맞았다. 먼저 도착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 과정에서 “지금(강진 집거생활에서) 하산 중”이라며 현실 정치 복귀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은 막걸리 회동 전 “막걸리를 마시다 손 전 대표가 취하면 업고 서울로 모셔가겠다”고 말해 손 전 대표에 대한 영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첫 정기국회 대치로 시작하나

청문회·사드 등 문제 산적...대선 앞 주도권 싸움 예고

사흘뒤 100일 장정 돌입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사흘 뒤 100일 동안의 장정에 들어간다.

3당 체제의 여소야대(小野大) 지형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정문화 정착’으로 시작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정기국회 첫날인 다음 달 1일 정해진다.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또 5~7일 중 ‘백반기 농민 사전 청문회’가 열리고, 8~9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이어진다. 야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가세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야당과 차별화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여야 3당이 정기국회에 대한 심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협치’의 의미가 되살아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각 당은 정기국회를 통한 정국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이개호, 김영란법 농·축산업 3년 유예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2일 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로 대체될 소지가 높다”며 “또한 국내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으며 5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여야 잠룡들 “행정수도 옮기자”

안철수·김종인·박원순·남경필 언급...대선 쟁점 주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이어 지난 24일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가세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향후 대선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수도이전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은 남 지사다. 그는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서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7일 안 지사, 지난달 5일 박 시장이 호응했다.

안 전 대표는 대선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추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